

# 순천시 다양한 가족 존중받는 도시 만들기 박차

###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 맞춤형 '순천형 가족사업' 강화 공동체 돌봄 양육 친화 환경 조성 40여억 투입 한부모 자립 지원

순천시가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순천시는 올해 생애 주기와 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순천형 가족사업'을 강화한다.

순천형 가족사업 대상 유형은 1인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 위기 가족 등이다.

순천시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해 생애 주기별로 특성에 맞는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지역사회 중심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확산하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른바 '가족 품앗이'라 부르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등 양육 기술을 전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순천형 가족학교'에 예산



순천시가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순천형 가족사업'을 강화한다. 순천시가 올해 신규 추진하는 다문화-결혼이민자 취업지원교육. <순천시 제공>

2000만원을 편성해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다음 달 하반기까지 '가을 소풍'을 떠나고 아버지 놀이 심화 과정, 다문화·비 다문화 부부 교육 등이 진행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순천지역에 있는 한부모 가족은 836가구(1876명)로, 시 전체 가구의 0.6% 비중을 차지한다.

순천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빠른 자립을 위해 국비를 포함해 총 40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순천지역 한부모 가족이라면 아동 양육비와 학용품 비용을 포함한 4개 분야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고 150만원의 대학 입학비용과 미혼모(자녀) 자립 정착금 500만원 등도 지원하며 통합 사

례 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순천시 전체 인구의 4% 비중(5006명)을 차지하는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책도 다양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순천 다문화 가구는 5006가구로, 5년 전보다 16.7%(718가구)나 급증했다.

순천시가족센터는 8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5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이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돕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의 언어발달까지 관리하는 가정 방문 교육을 펼친다.

농촌 다문화 가족의 경우 결혼 이주 여성이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깨뚱무 사업' '모국어 아가데미 특목 선생님' 등을 진행한다.

올해는 취업 지원 교육을 새로 추진하며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와 정책 방향도 변화되고 있다"라며 "가족해체 예방 및 건강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일류도시 순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보성군 '체험부스' 운영



보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사진>

이번 흡연·음주 예방 체험부스는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이 주최한 '2023년 AI 진로 직업 체험전'과 연계 운영된다.

체험 활동은 금연 링 던지기, 폐활량 측정, 음주 고글 체험, 금연 서약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금연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금연 클리닉 등록을 안내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금연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은 청소년의 신규 흡연 진입을 방지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금연 교실을 운영해 청소년이 조기 금연을 돕고 있다.

보성군은 모든 흡연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 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금연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음주로 인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곡성군, 인사·회계세무 교육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컨설팅

곡성군이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도약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의 입문을 돕고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곡성군은 지난 4월 말에 참여기업 6개소를 모집해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 컨설팅과 기존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을 지원하는 경영 컨설팅 등 2개 부문에서 신청을 받았다.

선발된 기업 6개소에 대해 7월 말까지 기업당 총 4회의 방문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청 절차, 신청 서류에 대한 피드백, 재정지원사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이 진행된다. 운영 컨설팅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관리, 인사노무, 회계세무, 재정지원사업 준비 과정 등 사회적 경제기업 공모·운영 등이 지원된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조직원 정보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 상생과 협력을 통해 사업기획, 기업홍보, 컨설팅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지원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맞춤 컨설팅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발전에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 여수시, 부산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홍보

### 사흘간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2026년 여수세계세미나박람회 소개도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를 내건 여수시가 부산에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홍보에 나섰다.

여수시는 전남도와 함께 지난 25~27일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박람회에서 여수시는 "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는 행사장에서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홍보하고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세계세미나박람회를 소개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응원하는 행사도 함께 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전남도, 부산시와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상호 협력하자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는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분위기를 지속해서 이어가며 여수·광양만권 선단의 수소 생산거점과 소비거점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수소 공급 공용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



여수시가 지난 25~27일 부산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렸다.

이곳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이 선보여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컨퍼런스,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엑스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 등 4

개 행사를 통합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러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에서 전 세계에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2050 여수 탄소중립 실현과 남해안 남중권 COP33 유치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 산악·해안 지역 국가지점 번호판 일제조사

고흥군이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판 200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건물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 지역 등산로, 해안가, 사방댐, 방파제 등에서의 조난 및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주소 정보 시설이다.

고흥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종합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판의 망실, 훼손, 표기 오류 등을 중점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김동현 고흥군 종합민원실장은 "코로나19의 안정화로 지역 내 등산로, 해안가 등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에 대비해 위험 지역을 조사해 추가로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